

일본에 있어서 달걀 유통의 현황과 문제점

사이토 후지오
(주) 애계원

I. 일본의 달걀 생산 및 유통구조의 변화

1) 생산구조의 변화

지난 30년동안 산란양계의 생산부문에서 발생한 가장 커다란 변화는 일본의 산란양계가 농가가 부업적인 양계로부터 소수의 전문적인 산란양계로 전환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표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지난 30년간 사육농가수는 1/500 이상으로 격감하였고, 사육수수는 약 3.3배 증가하였다.

표1. 산란계 사육호수 및 사육수수

구분 연도	사육호수 (1,000호)	사육수수 (6개월이상 산란계) (1,000수)
1960	3,838 (100)	44,500(100)
1970	509 (13)	118,201(268)
1980	124 (3)	123,720(278)
1990	87 (2)	136,961(308)

1991	9.7 (0.3)	138,717(310)
1992	8.9 (0.2)	144,455(325)
1993	8.2 (0.2)	147,178(330)

자료 : 농림수산성, 「축산통계」, 1993년

규모별 생산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표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93년 6월 현재 300수이상 성계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수는 전국에서 약 8,200호, 이 가운데 전업을 10,000수 이상으로 볼 경우 그 수는 약 3,000호가 된다. 또한 50,000수이상 사육농가는 670호이다. 또한 그들이 사육하고 있는 수수는 10,000수이상 농가(약 3,000호)가 전체의 89%, 50,000만수이상 농가(670호)가 전체의 5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최근 규모의 집중화는 더욱 가속되어 50,000수 이상 계층에서 활발히 확대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일본의 산란계업계는 300~400호의 경영체가 전체의 80~90%를 사육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산란계(우)수수, 규모별 사육호수 및 사육
수수**

사육호수(호)

연도 \ 수수	계	300~ 9,999	10,000~ 49,999	50,000~ 99,999	100,000 이 상
1992	8,910(호) (100)	5,750 (64.5)	2,500 (28.1)	390 (4.4)	270 (3.0)
1993	8,230 (100)	5,240 (63.7)	2,320 (28.2)	380 (4.6)	290 (3.5)

사육수수(천수)

연도 \ 수수	계	300~ 9,999	10,000~ 49,999	50,000~ 99,999	100,000 이 상
1992	144,455 (100)	17,840 (12.3)	48,653 (33.7)	26,514 (18.4)	51,448 (35.6)
1993	147,178 (100)	16,507 (11.2)	48,513 (33.0)	26,823 (18.2)	55,335 (37.6)

자료: 농림수산성, 「축산통계」, 1993년

2) 달걀 유통구조의 변화

일본의 달걀 유통구조를 조사한 대표적인 것으로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가 조사한 「계란유통구조 조사보고서」가 있다. 표3에 나타나 있듯이 그 유통구조는 생산자로부터 말단 소비·소매단계에 이르기까지 크게 생산자단계, 산지 집·출하단계, 소비지 수하도매단계, 소비·소매단계로 나뉘어 진다.

(1) 산지의 집·출하단계는 농협계통, 상계통, 직접출하 등 크게 세가지 계통으로 나뉘어 진다. 1975년부터 1985년에 이르는 10년간 기본적인 유통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단지 농협계통 출하가 32%에서 30%로 약간 감소한 반면, 상계통 출하는 변함없이 23%, 직접출하 및 기타가 45%에서 47%로 약간 증가했을 뿐이다.

(2) 소비지 수하도매단계부터 소비·소매 단계에서는 달걀시장, 달걀도매상, 직접판매 등 크게 세가지 계통으로 나뉘어진다.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살펴 보면, 달걀시장이 4%에서 9%로, 달걀도매상이 69%에서 58%로, 직접 판매가 27%에서 33%로 각각 변화하고 있어 달걀시장 및 직접판매가 각각 5%, 6% 증가한 반면, 달걀도매상은 11% 감소한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3) 최종 소매소매단계에 있어서 10년간 크게 변화한 점은 일반소매점의 감소(41%에서 20%), 슈퍼마켓의 확대(28%에서 42%), 생협외 확대(3%에서 6%)라고 할 수 있다.

〈표3〉 달걀유통구조의 변화

생산자 단계	→집·출하 단계	→수하도매 단계	→소비·소매 단계
	1985(1975)	1985(1975)	1985(1975)
생산자	농협계통 30%(32%)	달걀시장 9%(4%)	슈퍼마켓 42%(28%)
	상계통 23%(23%)	달걀도매상 58%(69%)	일반소매 20%(41%)
	직접출하 및 기타 47%(45%)	직접판매 33%(27%)	생협 6%(3%)
			대량수요자 9%(8%)
			직접판매 4%(6%)
			가공업체 17%(13%)
			기타 2%(1%)
	100%(100%)	100%(100%)	100%(100%)

자료: 농림수산성, 「계란 유통구조 조사보고」, 각년도판.

또한 최신의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근의 경향으로서 산지 집·출하단계에 있어서 생산자가 규모를 확대해 가면서 직접 수하도매단계 또는 소비·소매단계를 연결하는 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수하도매단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달걀도매상을 거치는 경로는 감소하고 있고 직접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종 소비소매단계에서는 일반소매점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퍼마켓, 생활협동조합, 가공업체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3) 달걀 유통구조 변화의 시대적인 배경

1960년대 초기에 대부분의 달걀은 식료품점, 야채가게, 기타 소규모 점포에서 날개판매 및 계량판매(저울에 달아서 파는 것)되고 있었다.

그 시기에 셀프 서비스를 모토로 하는 수퍼마켓이 개점되면서 유통혁명이 시작되어 달걀도 10개들이 팩에 포장되어 판매되게 되었다.

수퍼마켓이 확대됨에 따라 팩에 달걀을 집어 넣어 포장하는 GP센터가 일본 전국에 생겨났다. 당초 이 GP센터는 주로 달걀도매상, 사료회사, 사료판매대리점 등에 의해 설립·경영되었고, 양계장에 의한 GP센터 경영은 극히 일부였다.

수퍼마켓에서 대량판매가 가능해지자 생산농장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다. 양계가 농가의 부업이었던 것이 급속히 전업화하여 규모 확대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당시의 전업양계는 주로 대도시의 근교 및 100km권 이내에서의 경영이 중심이었고, 원료란을 콘테이너에 넣어 GP센터에 판매하는 방법이 취해져 농장에서는 대폭적인 성력화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농장에서 직접 손으로 선별하여 골판지 상자에 넣어 출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달걀의 주산지가 도시근교로부터 원격지인 동북 지방(아오모리현), 큐우슈우 지방(가고시마현, 미야자키현)으로 이동하였다. 이것은 고속도로,

주요도로의 정비, 연락선의 증설 등에 따라 유통망의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된 배경에는 수퍼마켓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대량판매에 걸맞는 대량생산, 대량수송이 새로운 산지를 경쟁력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 당시 도시근교의 구산지(舊產地)는 뉴켓슬병, 마레병 등에 오염되어 가고 있었고 환경문제, 지가상승 등의 요인이 겹쳐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었다.

1973년에 발생한 석유파동을 계기로 석유가격은 4배로 상승하였고, 이것은 수송비, 사료대금, 포장자재 등 모든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확대일로에 있던 원격지에서의 양계경영은 중단되기에 이르렀고, 경영조차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달걀은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판매시장에서 구매시장으로 변화하였고, 그무렵 일본에는 GP센터가 난립하였고 수퍼마켓에 대한 판매경쟁이 격화하여 GP센터의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다.

1970년대 후반들어 소비자의 힘이 강화되고, 또한 질이 좋으면서도 선도가 높은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자, 원격지에 있던 대형농장들이 도산하기에 이르렀고, 거꾸로 대도시 100km권내의 전업양계경영이 부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전업양계경영은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의 시간을 단축하여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우위에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1970년은 대형 수퍼마켓간의 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한 해입니다. 이때 달걀은 「싼거리(그날의 특매품 가운데 사면 이익을 보는 약간

의 고급상품)로 취급되어 슈퍼마켓에서의 판매비율이 급속히 높아져 갔고, 1970년대 후반에는 약 60% 이상의 달걀이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게끔 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자 달걀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져, 소비자에 의한 생산농장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비생활조합에 의한 공동구입, 공동매입이 급속히 확대되어 갔던 것이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신선하고 값싼 것만이 아니라, 항생물질 기타 항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달걀을 요구하게 되었고 인공착색제에 의한 난황의 착색도 원치않는 소비자마저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는 새롭게 특수란 시장도 생겨났다. 이것은 소비자의 관심이 건강문제로 바뀌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달걀에 항생물질이라든가 항균제의 잔류는 허용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계란속에 건강에 좋은 요소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수법마저 취해지고 있다. 요오드란, 비타민 강화란, 리놀산 강화란 등이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요오드란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6개월이 팩이 연간 일정하게 300엔에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일반 달걀의 3배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해서라도 맛 좋고 안전한 달걀을 먹겠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새롭게 창조된 상품인 것이다. 단, 이들 특수란의 시장은 그다지 큰 것이 아니고 전체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1990년에 걸쳐 In-Line-Complex농장이 완성됩니다.

이것은 복수의 성계사가 달걀 콘베이어에서

직접 GP센터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오늘 생산된 달걀이 곧바로 포장되어 빠르면 오늘날로 점포에 배송될 수가 있다. 과거 생산농장에서부터 원료난으로서 다른 장소의 소비지 GP센터에 운송되어 포장·가공되는 시스템에 비교하면 24시간 이상의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게 되었다.

1990년대의 유통은 소비지 GP센터와 In-Line-Complex농장 GP센터가 병존하게 되겠지만, 최근 In-Line-Complex농장 GP센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II. 달걀 유통의 현황 및 장래 예측

1) 달걀의 구입장소와 포장형태

일반소비자의 달걀 구입장소(횟수)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표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가정용 달걀은 거의 60%가 슈퍼마켓에서 구입되고 있고, 다음으로는 생활협동조합 등에 의한 공동구입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식료품점으로부터의 구입 비율은 점차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달걀의 공동구입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자면, 주로 생활협동조합이 약 10가구 정도를 하나의 그룹으로 조직하여 이들 그룹에서 1주일에 한번씩 달걀 및 기타 식료품을 직접 배송하게 되면 그룹의 담당자가 각 가정에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농장에서부터 가정에 최단시간 내에 달걀을 배송할 수가 있어 품질관리상 우위를 지켜왔다. 동시에 생활협동조합은 달걀의 안전성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1980년 초기부

터 농장을 선별하는 등 달걀의 안전성을 전면에 내세워 마케팅에 성공하였다. 생활협동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구입방식의 포장형태로는 「플라스틱 팩 10개들이」, 「종이몰드팩 10개들이의 재사용(5회정도 사용가능)」, 「종이몰드 트레이(20~40개 들이)」, 「플라스틱 트레이(주로 30개들이)」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플라스틱 팩 10개들이」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4. 달걀의 구입장소(횟수) 구성비

구분\년도	1980년	1985년	1987년
수 피 마켓	61.6(%)	57.2(%)	60.3(%)
공 동 구 입	10.7	20.2	20.5
식 료 품 점	9.9	5.5	3.0
정 육 점	6.0	3.9	4.5
야 채 점	5.0	8.1	6.2
행 상 노 점	3.6	2.2	3.5
백 화 점	0.4	0.5	0.8
기 타	2.8	2.5	1.2
계	100.0	100.0	100.0

자료 : 농림수산성, 「달걀 유통구조 조사보고」, 각년도판.

소매단계에 있어서의 포장형태는 표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80% 이상이 팩으로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고, 그밖에 계량판매(저울에 달아서 파는것), 날개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표5. 달걀의 포장형태(횟수) 구성비

구분\년도	1980년	1985년	1987년
PACK판매	82.6(%)	79.1(%)	83.9(%)
계량판매	13.9	18.3	12.3
날개판매	3.6	2.7	3.8
계	100.0	100.0	100.0

자료 : 농림수산성, 「달걀 유통구조 조사보고」, 각년도판.

생산자가 계란을 출하할 때의 포장형태를 조사해 본 결과(1985년 농림수산성 계란유통구조조사), 표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팩포장 31%, 골판지상자 36%, 상품배달용상자 31%(주로 GP센터용 원료란), 기타 2%로서 세가지 형태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의 경향으로서는 팩포장이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수하도매단계에서 출하할 때의 포장형태는 팩포장 44%, 골판지상자 37%로서 이 두가지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상품배달용상자에 의한 출하는 12%, 기타 9%를 나타내고 있다.

표6. 달걀출하시의 포장형태

(1) 생산자 → 집·출하단계	
팩 포장	31%
골판지상자	36%
상품배달용상자	31%
기타	1%
계	100%
(2) 수하도매단계 → 소비소매단계	
팩 포장	44%
골판지상자	37%
상품배달용상자	12%
기타	9%
계	100%

자료 : 농림수산성, 「달걀 유통구조 조사보고」, 1985년.

2) 달걀의 거래규격

현재 일본에서 달걀 유통에 이용되고 있는 규격은 1965년 2월 농림수산성이 제정한「계

란의 거래규격」에 의한 것이다.

이 규격은 벌칙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도기준이지만 실제로 업자간의 거래에서는 거의 이 규격을 기본으로 하여 다시 금 세세한 약속하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규격은 중량에 따라, LL, L, M, MS 및 SS 등 여섯 사이즈로 구분된다.

팩포장(통상 10개들이) 및 골판지상자 어느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격이 적용된다.

생산자가 일괄하여 원료란을 GP센터에 판매하는 경우의 금액은 GP센터에서 사이즈별로 제품화된 뒤에 그 비율에 따라 사이즈별로 가격을 곱하여 정산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거래에 이 규격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달걀은 세척하지 않고서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현재에는 거의 90% 이상이 세척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다.

표7. 달걀거래규격

(달걀1개의 무게)

종류	기	준
LL	70 g 이상	~76 g 미만
L	64 g	~70 g
M	58 g	~64 g
MS	52 g	~58 g
S	46 g	~52 g
SS	40 g	~46 g

3) 달걀가격 결정 시스템

달걀가격은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표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일본 전국 주요도시 10개소의

달걀시장(수하업자)에서 각각 입하량과 판매량 그리고 재고량을 고려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매일의 시세(가격)를 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계란의 생산·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본경제신문(조간)에 나와 있는 상품시세란을 통하여 시세를 알 수가 있다. 생산자와 수요자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포장형태, 운임, 판매량, 지불조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달걀시세를 결정하고 있는 전국 10개소의 달걀시장 가운데 5개소는 전농(전국 농업협동조합 연합회)이 경영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전농이 가격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야채시장에 있어서 경매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되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이러한 방식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다.

표8. 달걀시세를 결정하는 달걀시장(수하업자)

동 경	1. 全農中央달걀 Center
	2. 東洋달걀 kk
	3. 東京달걀 kk
	4. 東京都달걀事業協同組合
오오사카	5. 全農近畿畜産 Center
	6. 大阪달걀 kk
	7. 요코하마 全農가나가와 販賣所
	8. 가나가와 달걀協同組合
나 고 야	9. 全農名古屋 달걀판매소
후쿠오카	10. 全農福岡支所

4) 달걀가격의 변동(1961년~1992년)

1960년대는 일본 양계산업에 있어서 실로 황금시대였다. 수요가 순조롭게 늘어남에 따라 생산 및 유통은 확대되었고, 곧 이익에 연결되

있습니다. 표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달걀 가격도 1kg당 190~200엔으로 안정되어 있었다(10년간 평균가격은 1kg당 196엔).

1970년대에 접어들어 1973년 석유파동이 발생함에 따라 사료가격은 2배이상 상승하였고 기타 자재도 급등하여 달걀 가격은 1kg당 189엔부터 305엔까지 상승과 하락을 되풀이 하였다(10년간 평균가격은 1kg당 258엔).

1980년대에는 달걀에 대한 수요의 확대도 더이상 늘어나지 않아 달걀 가격도 1kg당 171~342엔 사이에서 심하게 등락을 거듭하였다(10년간 평균가격은 1kg당 243円).

1990년대 접어들어 사료가격이 인하되고, 생산구조 및 유통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생산이 과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가공란(주로 액란)

1991년 전국액란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달걀 전체 유통량(출하량) 가운데 국내 가공란의 비율은 13.4%이고, 수입가공란을 포함시키면 15.7%가 됩니다. 10년전인 1981년에는 각각 8.0%, 10.5%였으므로 가공란만의 증가율은 약 50%가 된다.

표9. 1961~1992년의 달걀가격
M size(58g~64g) 1kg당 가격

연도	엔/kg	연도	엔/kg	연도	엔/kg	연도	엔/kg
1961	194	1971	189	1981	342	1991	247
62	196	72	200	82	272	92	165
63	206	73	218	83	250	93	(170)
64	184	74	282	84	260		
65	191	75	304	85	271		
66	206	76	279	86	279		
67	194	77	304	87	174		

68	201	78	248	88	171		
69	191	79	248	89	190		
70	194	80	305	90	222		
평균	196		258		243		

* M size(1개)가격 : 12엔/개 16엔 15엔
M size 1kg은 달걀 16.4개에 해당함(평균난중 61.0g).

1992년은 이노우에씨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에서 할란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액란공장수는 121개소에 이르고 있다. 10년전인 1981년과 비교하면 할란능력은 약 2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가정용 달걀(팩포장)의 소비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반하여, 업무용 또는 일부 가정용 가공란(액란)의 소비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Ⅲ. 달걀 유통의 문제점과 대응책

1) 달걀 소비량의 정제

표1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과거 30년간 달걀의 소비량은 순조롭게 증가하여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일본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달걀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최근 10년간 1인당 소비량은 더이상 늘지않고 평행선을 나타내고 있다.

표10. 주요 각국의 연간 1인당 달걀소비량

(단위: 개)

국명\연도	1970년	1980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미 국	309	273	254	254	246	237	235
일 본	278	270	297	308	310	311	311

캐나다	263	227	204	199	202	197	194
영국	275	235	225	213	215	192	195
서독	281	285	272	268	262	252	250
프랑스	225	250	266	271	273	270	261
호주	220	214	173	170	169	167	-
이스라엘	350	314	347	325	352	345	340

자료 : 세계달걀협회의 조사 보고서

표11에 나타나 있듯이 미국, 유럽제국에서와 같은 소비의 감소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구미제국에서 달걀 소비 감소의 원인이 되었던 콜레스테롤에 의한 건강문제라든가,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으로서도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11. 1일 1인당 달걀소비량

(단위 : g)

연도	가정소비	업무·가공용	총소비량
1965	27	9	36
70	31	15	46
75	30	13	43
80	30	15	45
85	31	16	47
86	31	19	50
87	31	20	51
88	31	21	52
89	31	21	52
90	30	22	52

자료 : 총무청, 「가계조사」, 「식료수급표」, 각년도판.

2) 달걀 가격의 변동

앞에서 과거30년간의 달걀 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살펴 보았지만, 달걀의 1인당 소비량이 그다지 증가하고 있지 않은 최근 10년간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보면, 표1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5년 주기로 가격이 상승·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년대비 3~6%의 생산 증가는 약 35%이상의 가격저하를 초래하고 있고, 거꾸로 1~2%의 생산감소는 약 10%이상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표12. 달걀생산량과 달걀가격

연도	계란가격 (엔/kg)	전년비 (%)	달걀생산량 (1,000t)	전년비 (%)
1981	342	112.1	1,999	99.9
82	272	64.3	2,057	102.9
83	250	91.9	2,085	101.4
84	260	104.0	2,129	102.1
85	271	104.2	2,152	101.1
86	279	102.9	2,230	103.7
87	174	62.3	2,375	106.5
88	171	98.2	2,400	101.1
89	190	111.1	2,421	100.9
90	222	116.8	2,419	99.0
91	247	111.2	2,497	103.2
92	165	66.8	2,574	103.0
93	(170)	(103.0)	(2,537)	(98.5)

주 : ()안의 숫자는 예측치임.

가격의 격심한 변화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므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여러모로 실행되어 왔다. 정부가 실시한 가격변동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난가안정제도」가 있다. 이것은 생산자와 관계단체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여기에 정부가 출자하여 기금을 만들어 달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기금에서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생산자에게는 수입의 평균화를 기할 수 있어 매우 유효하다.

달걀 가격 그 자체의 평균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수급조정제도」가 있다.

또한 생산자단체에서는 행정지도에 의한 사

육수수 제한이 있다. 농림수산성의 局長통달에 근거하여 현별 사육수수 범위를 결정하여, 이 범위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른바 「생산조정」이다. 이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집하단계에서는 「조정보관」, 도매단계에서는 「(주)전국액관공사」가 개입하기도 한다. 즉 달걀의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시장에서 달걀을 사들이고,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다시 금 시장에 출하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로 달걀 가격의 안정 및 평균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격은 항상 변동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문제

일본은 연간 1인당 310개 이상의 달걀을 소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소비량이 많은 편이다.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업계로서는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달걀 자체가 안고 있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문제로서 이로 인하여 소비량이 격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1988년 영국의 보건성 정무차관인 카-리 여사가 「영국의 달걀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다」고 말한 이후, 약 2주일간 달걀의 소비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사건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1990년 9월 히로시마에서 생과자(테라미스)를 먹은 697명의 식중독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 원인은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으로써 원료인 액란이 오염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2년 4월 오사카, 교오토에서는 도시락에 사용된 달걀 부침에서 1,802명이나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을 일으켜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과거 일본에서는 어류의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많았지만, 이제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건수가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을 웃돌고 있다.

신선한 달걀을 소비자가 가정에서 먹는 단계에서는 식중독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액란을 사용한 대량 가공 단계에서 그 조리법, 보관이 다소 불량했을 때에는 예외없이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생산단계, 유통단계, 조리·가공단계 및 소비단계가 일체가 되어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현재 취해지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닭 본래의 감염을 근절시킨다.

원종계, 종계단계, 병아리단계에서의 검사 및 도태

(2) 양계장 단계에서의 수평감염을 근절시킨다.

사료 및 원료의 S.E.검사(특히 동물성 단백질 원료) 또는 사용금지,

펠렛화에 위한 살균, 달걀의 저온 보관, 흠집이 있거나 오염된 달걀 파기, S.E.약진의 사용(시험 단계)

(3) 유통소비단계에서는 특히 부적절한 액란 사용, 또는 조리후의 비위생적인 보관이 문제가 되므로 액란은 살균액란을 사용하도록 하고, 조리후의 온도관리(저온보관)에 철저를 기한다.

4) 축산물 수입자유화 문제

1992년 일본국내에서 소비된 축산물 가운데 수입품의 비율은, 쇠고기가 50% 이상이고, 육계는 20%, 돼지고기는 25%를 넘고 있는 실정다. 앞으로는 더욱 수입이 확대되어 국내 생산 비율은 감소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달걀의 경우 수입은 거의 동결란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종류로는 전란, 난황, 난백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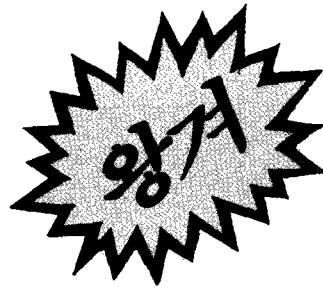
표 13. 동결란의 수입통관실적

연도\구분	(A) 동결란 수입량 (1,000t) (%)	(B) 국 내 생산량 (1,000t)	(A)+(B) (1,000t)
1975	35.6(1.9)	1,787	1,823
1980	30.4(1.5)	2,001	2,031
1985	21.9(1.0)	2,152	2,174
1990	28.4(1.1)	2,419	2,447
1991	40.5(1.6)	2,497	2,538
1992	27.6(1.1)	2,574	2,602

일본에 동결란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브라질, 태국, 화란, 남아프리카 등이다.

수입량을 살펴보면 표 13에 나타나 있듯이 과거 10~15년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국내 총소비량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관세로서 20% 또는 1kg당 60엔 가운데 높은 쪽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계**



**왕
겨
취
금
전
문**

본사는 양계농가에서 깔짚 및 계분 건조시에
활용하는 양질의 왕겨를 무제한 구비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즉시 보급해 드립니다.

왕겨 창고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회암2리 585
전 화 : (0351) 866-4336
호출기 : 012-285-2154